

청년 집단의 죽음 공포와 죽음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

김 지 현[†]

민 경 환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청년들이 죽음에 대하여 갖는 공포와 죽음에 대한 수용을 포괄하는 죽음 태도에 미치는 심리학적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 1에서는 성별에 따라 청년 집단의 죽음 공포와 죽음 수용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 자아 존중감, 심리적 적응,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신경증 성향 등을 포함한 성격 변인들과의 관계성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죽음에 대한 회피 경향이 높은 반면에 여학생들의 죽음 수용 정도는 남학생들보다 높았고, 자아존중감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서 여학생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격 변인들이 청년 집단의 죽음 공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대학생들의 죽음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성격 변인들, 및 죽음과 관련된 태도 변인들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죽음 공포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신경증 성향, 심리적 적응, 자아 존중감, 죽음 대처 효능감, 노화에 대한 태도, 및 노인에 대한 태도 등이었고 이들 변인들은 전체 변산성의 26.1% 정도를 설명하였다. 한편, 죽음에 대한 수용에 대하여 성별과 주거환경 등의 인구학적 변인들과 종교성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들 변인들은 죽음 수용 변산성의 약44%를 설명하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과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죽음공포, 죽음수용, 성차, 성격 변인, 주관적 안녕감, 종교성, 죽음관련 태도

[†] 교신저자 : 김지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사회대 심리학과
E-mail : jenny10@snu.ac.kr

죽음에 대한 공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보편적인 정서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다(Bakan, 1971; Becker, 1973; Marshall, 1980). Wong(1994)의 개관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죽음 불안(death anxiety)과 죽음 공포(fear of death)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하지만 Feifel 과 Branscomb(1973)은 죽음 공포(fear of death)가 죽음에 대한 명세적(specific)이고 의식적(conscious)인 공포인데 비해서, 죽음 불안(death anxiety)은 일반화되고(generalized) 자각되지 않는(inaccessible to awareness)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죽음 공포는 의식적인 수준에서 언어적으로 보고되는 정도에 따라 측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Wong, Reker, & Gesser, 1994). Tomer(1994)의 개관에 따르면, 죽음 불안을 다룬 심리학적 이론들은 자기-실현 이론(Self-Actualization Theories, Maslow, 1968, 1970; Rogers, 1959), 의미탐색 이론(Search-for-Meaning Theories, Antonowski, 1979; Frankle, 1963; Maddi, 1970; Taylor, 1983; Thompson & Janigian, 1988), 개인적 구성 이론(Personal Construct Theory, Kelly, 1955), 부인 및 긍정적 착각 이론(Denial and Positive Illusion Theories, Becker, 1973; Freud, 1946), 죽음 불안의 이 요인 이론(The Two-Factor Model of Death Anxiety, Gilliland & Templer, 1985-1986; Templer, 1976), 테러 관리 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 Rosenblatt, Greenberg, Solomon, Pyszczynski, & Lyon, 1989), 자기 통제 착각 이론(Illusions of Self Control Theory, Taylor & Brown, 1988; Taylor, Collins, Skokan, & Aspinwall, 1989), 자기-개념 괴리 이론(Self-Concept Discrepancy Theory, Higgins, 1987),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Psychosocial Theory of Development, Erikson, 1963, 1982) 등 다양한 관점의 이론들이 존재

한다.

Erikson의 심리사회적 이론(Psychosocial Theory)에서는 자신의 삶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개인의 자각에서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가 기인한다고 본다. 또한 실존주의적인 관점을 취하는 일군의 연구자들도 인간을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전제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는데 실패하는 것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가 경험된다고 하였다(Reker, Peacock, & Wong, 1988; Reker & Wong, 1988; Frankl, 1965; Wong, 1989). Butler(1961, 1963)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무의미한 실존이며 자신의 삶이 가치 있다는 자기 지각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줄여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Wass, Berardo 및 Neimeyer(1988)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의 가치와 성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생에서 아끼던 것들을 잃는다는 사실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죽음 공포는 단일한 구성체가 아니며(Collett & Lester, 1969; Littlefield & Fleming, 1984), 죽음과 관련된 주제들은 복합적이다(Kastenbaum & Costa, 1977; Wass, 1979).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자아 상실(the loss of self), 사후 세계에 대한 미지성(the unknown beyond death), 고통과 괴로움(pain and suffering), 남은 가족들의 복지(the welfare of surviving family members) 등을 포함하는 여러 원인들로부터 기인한다(Feifel, 1977; Feifel & Nagy, 1981; Fry, 1990).

Hoelter(1979a)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죽는 과정에 대한 공포, 시체에 대한 공포, 시신의 훼손에 대한 공포, 자신의 죽음이 소중한 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포, 사후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죽는 것에 대한 공포, 사후 시체의 처리에 대한 공포, 준비되지 않은 때 이른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의 여덟 요인들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러한 연구에 기반하여 '다차원적 죽음 공포 척도(Multidimensional Fear of Death Scale)'를 개발하였다.

한편 Wong 등(1994)은 죽음 공포와 관련되는 기존 연구들을 개관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 뿐 아니라 죽음 수용의 측면까지 포괄하는 죽음에 대한 다면적인 태도를 연구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죽음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죽음에 대한 다차원적인 측정 도구인 '죽음 태도 척도-개정판(DAP R: Death Attitude Profile Revised)'을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죽음에 대한 공포(fear of death), 죽음에 대한 회피(death avoidance), 죽음에 대한 중립적 수용(neutral acceptance), 죽음에 대한 접근적 수용(approach acceptance), 및 죽음에 대한 도피적 수용(escape acceptance)의 다섯 하위 척도로 구성되었다.

Wong 등(1994)은 이 척도를 사용하여 청년 집단과 중년 집단 및 노년 집단의 죽음 공포 수준과 심리적 및 신체적 안녕감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 집단 간에 죽음 공포의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노인 집단의 경우에는 죽음 공포와 죽음 회피 수준이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하게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비해서 청년 집단의 경우에는 그러한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중년 집단의 경우에는 죽음 회피와 안녕감 간의 부적 관계성이 나타났다. 또한 노인 집단에서 죽음에 대한 접근적 수용이 안녕감과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성차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남

성들은 죽음 회피 경향성이 여성들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들은 죽음에 대한 접근적 수용이 남성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죽음에 대한 도피적 수용 정도에서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느끼는지 탐색하여 보고자 Wong 등(1994)이 개발한 '죽음 태도 척도-개정판'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부가하여, Hoelter (1979)가 개발한 다차원적 죽음 공포 척도(Multidimensional Fear of Death Scale)의 하위 척도인 죽는 과정에 대한 공포(Fear of Dying)와 사후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Fear of Unknown)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죽음 공포의 요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fear of death), 죽는 과정에 대한 공포(fear of dying), 사후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fear of unknown), 죽음 회피(death avoidance) 등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죽음 공포와 죽음 수용을 모두 포함하는 죽음 태도를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죽음에 대한 다차원적인 측정 도구인 '죽음 태도 척도-개정판(DAP R: Death Attitude Profile Revised)'을 번안하여 사용하였고, 이 도구를 사용하여 Wong 등(1994)의 연구에서 얻어졌던 성차에 대해서도 검증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중년 및 노년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에서 사용할 도구를 구성하기 위하여 다차원적 죽음 공포 척도(Multidimensional Fear of Death Scale)의 하위 척도인 죽는 과정에 대한 공포(Fear of Dying)와 사후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Fear of Unknown)를 포함하였다.

Epting과 Neimeyer(1984)는 개인이 죽음에 대하여 갖는 태도에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고 주장했는데, 그 하나는 죽음이 정체성의 종말이라는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죽음이 새로운 삶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관점이다. Ray와 Najman(1974)은 죽음 수용이 죽음 공포와 유목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Feifel(1990)도 죽음에 대한 불안과 수용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Kübler-Ross(1969)에 의하면 죽음에 이르는 단계들 중 마지막 단계는 죽음 수용이며 이는 건강한 개인에 있어서 죽음에 대한 심리적인 준비를 뜻한다. Klug와 Sinha(1987)는 죽음 수용(death acceptance)을 ‘인생의 유한성을 비교적 편안하게 느끼는 것(being relatively at ease with one’s awareness of personal mortality)’으로 정의하였다(p. 229). 이들에 따르면 죽음 수용의 두 가지 구성 요소는 ‘자신의 종말에 대한 인지적 자각(cognitive awareness of one’s own finitude)’과 ‘그러한 인식에 대한 긍정적-적어도 중성적-인 정서 반응(positive or at least neutral emotional reaction to this cognizance)’이다.

또한 Butler(1975)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자각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용 태도를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Erikson(1963)이 규정하였던 인간 생애의 발달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통합 대 절망의 단계에서 경험되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Wong 등, 1994).

Wong과 Watt(1991)는 회고(remembrance)에서 자아통정감(ego integrity)을 보여준 노인들이 건강 및 행복 수준에서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Durlak(1972)은 삶의 의미와 목표를 명확하게 보고한 피험자들이 죽음에 대하여 더 적은 공포를 보이고 죽음을 더 잘 수용하며 더 긍정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이러

한 관점은 인생 개관(life review)과 죽음 태도간의 관계성을 연구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지되었다(Lewis & Butler, 1974). Georgermiller와 Maloney(1984)도 인생 개관(life review)을 경험한 피험자들의 경우에 죽음을 부정(denial)하는 경향이 낮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Drolet(1990)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의 목적 간에 부적의 관계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Flint 등(1983)은 Klug와 Boss(1977)의 죽음 근심 척도(Death Concern Scale)에 기초하여 개발한 죽음 수용 척도를 사용하여 노인 집단의 삶의 만족도와 죽음 수용간에 정적인 상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편, Wong 등(1994)은 죽음에 대한 태도를 삶의 의미와 관련지어 탐색하는 일련의 연구들을 개관하여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과 죽음 태도간의 관계성을 밝혔는데, 이들의 연구 결과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죽음에 대한 수용을 세 요소 모델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죽음 수용의 세 요소는 중립적 수용(neutral acceptance), 접근적 수용(approach acceptance) 및 도피적 수용(escape acceptance)이다.

중립적 수용(neutral acceptance)은 죽음이란 삶의 필수 요소이며 살아있다는 것은 곧 죽음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수용하는 입장을 의미한다(Armstrong, 1987; Kübler-Ross, 1981; Morison, 1971; Saunders & Baines, 1983). 죽음에 대하여 이러한 관점을 가지는 사람들은 죽음을 삶의 불변하는 영역으로 수용한다. 이러한 관점은 Hooper의 죽음 무관심 척도(Indifference Toward Death)와 Spilka(1970)의 죽음 조망 척도(Death Perspective Scale)에서 측정되는 개념과 유사하다. 또한 인본주의/실존주의 심리학의 기본 주제인 자아 실현(self actualization)이 개인의 유한

성(mortality)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관점에서 볼 때, 성공적으로 자아를 실현한 사람은 자신의 죽음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Bugental, 1965; Feifel, 1990; Maslow, 1968; May, Angel, & Ellenberger, 1958). 이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줄여주고 안녕감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한 Frankl(1963)의 주장과도 합치된다.

접근적 수용(acceptance)은 행복한 사후세계와 관련된 신념을 시사하는 것이다(Dixon & Kinlaw, 1983). 환생을 믿거나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나 가족의 죽음에 대해 덜 불안해 하고 죽음을 보다 긍정적으로 기술한다(Florian, 1993).

도피적 수용(escape acceptance)은 삶이 고통과 비탄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죽음이 환영할만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의미한다. Vernon(1972)은 삶에 대한 공포가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강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고통에 압도당할 때에는 오직 죽음만이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Wong 등(1994)은 노인들이 청년이나 중년 집단에 비해서 도피적 수용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는데,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노년기의 죽음 불안 감소는 죽음 수용의 증가에 수반한다.

본 연구는 죽음에 대한 공포 뿐 아니라 수용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Wong 등(1994)이 개발한 '다차원적 죽음 태도 척도-개정판'을 사용하여 죽음에 대한 중립적 수용(neutral acceptance), 죽음에 대한 접근적 수용(approach acceptance), 및 죽음에 대한 도피적 수용(escape acceptance)의 세 하위 척도를 '죽음 수용' 척도로 하여 남,녀 청년 집단간의 죽음 수용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

고자 한다.

Wong, Reker, 및 Gesser(1994)의 연구 결과에서 여성들은 죽음에 대한 접근적 수용이 남성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죽음에 대한 도피적 수용 정도에서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 성차가 나타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Pollark(1980)은 죽음 공포 연구들을 개관한 논문을 통해 여성의 죽음 공포 수준이 남성에 비해 높다고 주장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그의 주장을 지지하였다(Lonetto, Mercer, Fleming, Bunting, & Clare, 1980; McMordie, 1978; Neimeyer 등, 1977; Neimeyer, Bagley, & Moore, 1986; Wass & Myers, 1982). 이러한 차이는 여러 문화에서 보편적인 경향성으로 나타났다(Lonetto et al., 1980; McMordie & Kumar, 1984).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드러내기 때문에 죽음 공포 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Stillion, 1985)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된 Dattel과 Neimeyer(1990)의 연구에서는 죽음 불안 척도(DAS: Death Anxiety Scale), 위협 지표(Threat Index), Jourard 자기개방성 질문지(Jourard Self Disclosure Questionnaire), 사회 선의도(Social Desirability) 척도 등이 포함되었는데, 피험자들의 자기 개방성과 사회 선의도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하게 여성들의 죽음 공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eimeyer(1986)은 Collett Lester의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Fear of Dying of Self) 하위척도 상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공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높은 죽음 불안을 보인다고 주장한 연구들도 존재한다(Cole, 1978; Robinson & Wood, 1984). Klenow와 Bolin(1989)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사후 세계

에 대한 더 강한 믿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고 Berman과 Hays(1975)는 여성들의 죽음 공포 수준이 남성에 비해 낮다고 주장했다. Wong 등 (1994)의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죽음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특히 접근적 수용의 경우에 그러한 성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은 죽음을 회피하는 경향성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들의 죽음 공포와 죽음 수용에서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들에서 시사되었던 성차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Flint, Grayton, 및 Ozmon(1983)은 죽음 수용과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으며, Fry(2003)는 여성들이 사회적 지지를 남성들에 비해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죽음 공포 수준이 낮고 적응을 잘 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의 결과를 죽음 수용 태도와 관련지어 살펴보기 위해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격의 다섯 요인들 중에서 개방성, 외향성, 및 신경증적 성향과 죽음 관련 태도간의 관계성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성격 변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인지 탐색하여 보기 위하여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 심리적 적응, 신경증적 성향, 개방성, 및 외향성에 대한 측정을 포함하였다.

기존의 죽음 공포 연구들이 주로 성별이나 경제적인 수준, 종교성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따른 죽음 공포 수준에서의 차이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는데 비하여, Fry(2003)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보다 자기효능감과 같은 성격 변인이 죽음 공포를 더 잘

예언해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도 과연 성별이나 경제적 수준, 종교성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보다 성격 변인들이 죽음수용이나 죽음 공포를 더 잘 설명하여 줄 것인지를 검증하여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청년들이 죽음에 대해 갖는 공포와 수용을 다차원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다양한 개인차 변인들과의 연관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수용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가적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와 성격 변인들과의 관련성도 성별 집단에 따라 비교하여 볼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청년집단의 경우에는 성격 변인이 인구학적 변인들보다도 죽음에 대한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I

방법

연구대상

서울대학교와 한림대학교에 재학중인 183명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험자들은 남자 대학생 82명과 여자 대학생 10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21.4세였다.

도구 및 절차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작성 시간은 약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지에 포함된 척도들은 다음과 같다.

죽음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는 Wong 등(1994)이 개발한 죽음 태도 척도(Death Attitude Profile Revised)중에서 죽음 공포(Fear of Death)와 죽음 회피(Death Avoidance)를 측정하는 두 하위척도와 Hoelter(1979)의 Multidimensional Fear of Death Scale(MFODS)중에서 죽는 과정에 대한 공포(Fear of Dying)와 사후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Fear of Unknown)라는 두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두 7점 척도로 총 23문항이 사용되었다. 죽는 것에 대한 공포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6이고 4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1이었다. 죽음 회피 척도는 내적 합치도가 .88이고 4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1이었다. 한편, 죽는 과정 공포 하위 척도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77이고, 사후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 척도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72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신뢰도는 .91였다.

죽음 수용

Wong 등(1994)이 개발한 죽음 태도 척도(Death Attitude Profile Revised)중에서 중립적 수용(Neutral Acceptance), 접근적 수용(Approach Acceptance), 및 도피적 수용(Escape Acceptance)의 세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7점 척도 상에 답하게 하였으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 계수(coefficient alpha)는 중립적 수용이 .65, 접근적 수용이 .97, 회피적 수용이 .84이었고,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중립적 수용이 .64, 접근적 수용이 .95, 회피적 수용이 .83 이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신뢰도 계수

는 .84이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House와 Wells(1978)가 제작한 10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만든 척도이다. 신뢰도 계수는 .77이다.

자아존중감(Self-Esteem)

Rosenberg(1965)가 개발한 GSES(Global Self-Esteem Scale)을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기 개념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이 자신에게 부합하는 정도를 5점 척도상에 표시하게 하였다. 한국판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9이다.

심리적 적응(Psychological Adaptation)

PGCMS(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적응 정도를 측정하도록 고안된 척도로서 평정감(non-agitation), 노화에 대한 만족(aging satisfaction),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life satisfaction)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하위척도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평정감이 .79, 노화에 대한 만족이 .69였다. 삶에 대한 만족은 1문항으로 구성되므로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지 않았다.

성격 측정

NEO PI(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Manual)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oldberg와 Saucier(1996)의 IPIP(Interpersonal Personality Item Pool 10)을 유태용, 김명언, 이도형(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외향성, 신경증, 우호성,

개방성, 성실성 등의 다섯 가지 성격 특성들을 나타내는 50개의 진술문들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이 자기 자신과 부합되는 정도를 5점 척도상에 답하게 하는 것이었다. 한국판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하위 영역별로 $N=.91$, $E=.90$, $O=.79$, $A=.67$, $C=.95$ 였다.

결과 및 논의

연구 I에 포함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성별에 따라 제시한 것이 표 1-1이다. 각 변인들의 성차에 대한 t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들에 비해서 남학생들의 죽음 회피 경향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1$). 이러한 결과는 Wong 등(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죽음 회피 문항과 연관지어 볼 때,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하여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한다’거나, ‘죽음에 관한 생각이 들 때면 그것을 밀어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또한, 여학생들의 경우에 죽음에 대한 도피적 수용 정도가 남학생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 결과 역시 Wong 등(199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여 주는 것으로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죽음은 인생의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죽음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더 많다는 것을

표 1-1 . 연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

	남 성 평균 (표준편차)	여 성 평균 (표준편차)	전 체 평균 (표준편차)	t값(유의도)
죽음 공포	3.75(.95)	3.74(.92)	3.74(.93)	0.77(.939)
죽음에 대한 공포	3.63(1.21)	3.59(1.34)	3.61(1.28)	.193(.847)
죽음 회피	3.41(1.12)	2.94(1.14)	3.15(1.15)	2.753(.007)**
죽는 과정에 대한 공포	4.73(1.43)	5.10(1.16)	4.94(1.30)	-1.918(.057)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	3.11(1.11)	3.09(1.01)	3.10(1.06)	.109(.914)
죽음 수용	3.88(.86)	4.13(.94)	4.02(.91)	-1.851(.066)
중립적 수용	5.07(.99)	5.30(.89)	5.19(.94)	-1.664(.098)
접근적 수용	3.79(1.26)	3.95(1.43)	3.88(1.36)	-.774(.440)
회피적 수용	2.87(1.26)	3.29(1.36)	3.10(1.33)	-2.176(.031)*
자아존중감	2.66(.34)	2.57(.28)	2.61(.31)	1.979(.049)*
사회적지지	3.54(.55)	3.69(.58)	3.62(.57)	-1.826(.070)
심리적 적응	3.20(.59)	3.34(.58)	3.28(.59)	-1.582(.115)
신경증적 성향	2.57(.72)	2.55(.69)	2.56(.71)	.178(.859)
경험에 대한 개방성	3.50(.71)	3.29(.61)	3.39(.67)	2.100(.037)*
외향성	3.11(.84)	3.12(.70)	3.12(.77)	-.087(.931)

주. independent-sample t-검증(자유도:182)

* $p< .05$, ** $p< .01$.

표 1-2. 연구 변인들간의 상관 분석

	성별	자존감	사회적 지지	심리적 적응	신경증	개방성	외향성	죽음 공포
자존감	-.146*							
사회적 지지	.135	.339***						
심리적 적응	.117	.335***	.605***					
신경증	-.013	-.161*	-.549***	-.550***				
개방성	-.154*	.322***	.194***	.244**	.007			
외향성	.006	.355***	.462***	.411***	-.134	.493***		
죽음공포	-.006	-.050	-.222**	-.303***	.319***	-.022	.011	
죽음수용	.137	-.022	.060	.046	-.024	.084	.062	-.203**

주. Pearson-r(양방검증) 점수.

* $p < .05$, ** $p < .01$, *** $p < .001$.

의미한다.

다음으로, 성격 변인들에 대한 평균을 성별에 따라 비교하여 보았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고($p < .05$),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서 높은 경향성이 있었다($p < .05$).

연구 1에 포함된 변인들을 대상으로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2는 연구 1에 포함된 변인들의 상관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죽음 공포는 사회적 지지와 역상관 관계를 보였고($p < .01$), 심리적 적응과도 유의미한 역상관을 보였으며($p < .001$), 신경증적 성향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p < .001$).

죽음에 대한 공포와 안녕감 간의 관계를 연구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볼 때,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들과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죽음 공포에서 높은 사람들은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떨어지고, 신경증적 성향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수준과 심리적 적응간의 높은 상관($p < .001$)이 나타나고 사회적 지지와 죽음 공포간의 부적의 관계성이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 공포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죽음 공포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성격 변인들을 후속 연구에서 탐색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연구 1에서 죽음 수용은 죽음 공포와 역상관을 보였을 뿐($p < .01$), 기타 변인들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년 집단의 죽음 공포에 대하여 본 연구에 포함된 성격 변인들이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년 집단에서는 개인의 성격 변인들이 죽음 공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F(6, 182) = 4.724$, $R^2 = .141$). 전체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귀 분석에서 이러한 성격 변인들은 죽음 공포의 약 14.1% 정도의 변산성을 설명하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이 죽음공포에서의 성차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남, 녀 각

표 1-3. 성별에 따른 죽음공포에 대한 회귀분석

성 별 변 인	여 성				남 성			
	β	t	F	R^2	β	t	F	R^2
자아존중감	.064	.586	2.037	.116	.009	.076	4.340***	.263
사회적지지	-.016	-.114			-.193	-.128		
심리적적응	-.338	-2.531*			-.055	-.357		
신경증	.057	.421			.357	2.696**		
개방성	-.053	-.475			-.061	-.484		
외향성	.265	2.085*			.064	.470		

자유도는 남(6, 79), 여(6, 100)

* $p < .05$, ** $p < .01$, *** $p < .001$.

각의 집단별로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보았다.

표 1-3은 남,녀 집단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흥미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는데,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신경증적 성향이 죽음 공포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p < .01$), 이러한 성격 변인이 남학생들의 죽음 공포의 약 26.3%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심리적 적응($p < .05$)과 외향성($p < .05$)이 죽음 공포와 상관이 있었지만 이러한 성격 변인들이 죽음공포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죽음 공포에 미치는 성격 변인들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시사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표본 크기가 일반화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부족한 한계가 있다.

연구 1을 통해 청년 집단에서 남성과 여성이 죽음 공포 및 죽음 수용 각각의 죽음 태도 차원에서 다르다는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또한 연구 1의 결과는 죽음 공포에서의 성차를 보이게 되는 원인으로서 다양한 성격 변인들

을 탐색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주었다.

따라서 연구 1에서 나타난 성차를 재확인하고, 성별 이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따라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 2를 실시하였다.

연구 II

죽음 태도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연령, 성별, 주거환경, 경제적 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가지고 구분한 노인 집단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어 왔다.

Fortner와 Neimeyer(1999)는 죽음 불안과 관련된 49개 논문들에 대한 양적 개관을 실시하였는데, 기존 연구들에서 죽음 공포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은 연령(age), 성별(gender), 자아통정감(ego integrity), 시설 수용 여부(institutionalization), 심리, 신체적 문제(psychological and physical problems), 종교성(religiosity) 등이다.

연구 2에서는 죽음 공포와 관련 있는 것으

로 연구되어 온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또한 연구 1의 결과에서 심리적 적응과 신경증 성향과 같은 성격 변인들이 죽음 공포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여 주는 것이므로, 연구 2에서 죽음 수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추가적인 개인차 변인들을 연구에 포함하였다.

Wong 등(1994)은 죽음을 수용하는 정도가 심리적 안녕감과 신체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들의 연구에서 안녕감이 높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접근적 수용 정도가 높았다. 또한 Flint, Grayton, 및 Ozmon(1983)도 죽음 수용과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살펴본 변인들에 부가하여 안녕감과 인생 만족도를 측정하여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Fry(2003)는 여성들이 사회적 지지를 남성들에 비해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죽음 공포 수준이 낮고 적응을 잘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 1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죽음 공포간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얻어졌다. 따라서 연구 2에 사회적 지지 변인을 포함시켰다. 또한 Steinitz(1980)가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과 낙관성간의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고하였고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낙관성이 안녕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으므로 낙관주의 척도를 포함하였다.

Bandura(1977, 1982)는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에 대한 신념을 지각된 자기효능감(perceived self efficacy)이라고 명명하고,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연령, 건강, 성별, 교

육 정도에 따라 어떤 이들에게는 일반적 구성체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영역 특정적이라고 제안하였다. 그가 제안한 개인적 효능성의 사회인지적 틀의 조망에서 볼 때, 개인의 자기 효능 신념은 미래사건의 예측불가능한 요소들과 관련된 불안 및 스트레스라는 한계에 대항하는 통제감을 부여해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 Bandura(2000)는 약한 자기효능신념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공포나 불안에 대해 더 쉽게 굴복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회-인지 모델의 틀을 가지고 죽음 공포를 설명하고자 한 연구들(Fry, 2001a; Lawton, 2001; Smith et al., 2000)은 약한 자기효능 신념을 갖는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더 낮고 자아 존중감에서의 감소가 더 크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효능감은 사후에 대한 공포와 죽음 공포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반영한다(Neimeyer & Moore, 1994).

Fry(2003)는 자기효능감이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들이나 사회적 지지, 종교성 등의 변인들보다도 죽음 공포를 예측하는 더 강력한 예언 변인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반적 자기효능감, 영역특정적 자기효능감, 및 죽음 대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척도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연구 2에서는 죽음에 대한 태도와 관련될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들 중 노인에 대한 태도와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 척도를 포함하였다. DePaola 등(1993)은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죽음 불안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으며, 노인복지 시설 직원들 중에서 노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의 죽음 공포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Eakes, 1985; Vickio & Cavanaugh, 1985). 한편 Vickio 등(1985)은 죽음 불안과 노

화(aging)에 대해 갖는 개인적인 불안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노화에 대한 태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에 따른 죽음 공포와 수용간의 관계성을 탐색하여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2에서는 죽음 수용과 관련하여 종교성에 대한 측정을 포함하였다. 종교성은 개인의 삶에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Markides(1983)와 Krause(1993)가 사용한 설문항을 사용하여 종교성을 측정하였는데, 이는 첫째, 자신의 삶에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둘째, 자신의 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셋째, 신의 존재가 얼마나 자신에게 중요한지 평정하게 하는 것이다. Krause(1993)는 이 질문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과는 무관하게 종교성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종교성 수준과 죽음 수용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Peterson과 Greil(1990)은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과 종교성의 다양한 측정치들간의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종교적 신념과 죽음 공포간의 부적인 관계성을 보고했지만(Feifel & Nagy, 1981; Hooper & Spilka, 1970; Martin & Wrightsman, 1965; Stewart, 1975; Templer, 1972), 둘 간의 관계성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은 연구들도 있고(Feifel, 1974; Kalish, 1963; Templer & Dodson, 1970), 정적인 상관을 얻은 연구들도 존재한다(Templer & Ruff, 1975; Young & Daniels, 1981). Aday(1984)는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이 종교의 주된 기능인 것은 사실이지만 죽음 공포와는 직접적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Jeffers, Nichols, 및 Eisdorfer(1961)는 종교적

현신이 강한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더 믿는 경향이 있고 죽음 공포 수준이 낮다는 것을 밝힌 바 있으며, Berman 등(1975)은 종교적 관여 정도와 사후 세계에 대한 신념 간의 강한 상관을 발견하였다.

Florian(1993)은 청년 집단이 중년 집단에 비해서 종교성에 따른 죽음 수용의 차이를 더 뚜렷하게 나타낸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전쟁에 참전한 이스라엘 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Florian의 연구(1993) 결과, 종교적인 신념이 강한 청년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종교적 신념의 강도에 따라 청년 집단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할 것인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 2의 첫 번째 목적은 죽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 1의 결과를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대학생들의 죽음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변인들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온 기존의 죽음 공포 연구에서 사용된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보다도 성격 변인들이나 죽음 관련 태도 변인들이 대학생들의 죽음 공포와 수용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161명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남자 대학생 57명과 여자 대학생 10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19.9세였다. 피험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도구 및 절차

절차는 연구 1과 동일하며, 연구 1에서 사용된 도구들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측정 도구가 포함되었다.

인생 만족도(Life Satisfaction)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신체적 건강 만족도, 대인 관계 만족도 등의 세 영역에서 인생 만족도를 측정하는 김민희 연구(2003)에서 사용한 척도에 “지금 현재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와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지난 인생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두 문항을 포함시켜 현재 삶 만족도, 과거 삶 만족도, 전반적 인생 만족도, 신체적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등 다섯 문항에 대해 5점 척도 상에 평정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내적 합치도는 .80이었다.

낙관성

낙관주의-비관주의 척도(Life Orientation Test - Revised: LOT R) 10문항을 사용하여 5점 척도 상에서 답하게 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내적 합치도는 .70이었다.

전반적 자기효능감

전반적 자기효능감(global self-efficacy)은 삶에서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일컫는다(Bandura, 1986). 이러한 전반적 효능감은 김아영과 차정은

(1996)이 개발한 23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보고된 내적 합치도는 .86이며, 본 연구에서 얻어진 내적 합치도는 .90이었다.

영역 특정적 효능감

영역 특정적 효능감(domain-specific self-efficacy)은 Fry(2003) 연구에서 개발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25문항 중에서 15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내적 합치도는 .84이다.

죽음에 대한 대처(Coping with Death)

죽음에 대한 성공적 대처를 측정하는 Bugen (1980, 1981)의 죽음 대처 척도(Coping with Death Scale)는 3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서 “나는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음을 대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낀다.”, “나는 현재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 “죽어가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다.” 등의 문항들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 상에 답하게 하는 것이다. 이 척도의 보고된 내적 합치도는 .90이며, 본 연구에서 얻어진 내적 합치도는 .81이었다.

노화에 대한 태도

Kafer 등(1980)의 Personal Anxiety toward Aging (PAA)는 자기 자신의 노화를 염려하고 불안하게 느끼는 것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1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낮은 점수는 개인적인 노화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불안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52였다.

노인에 대한 태도

이선자(1989)가 개발한 척도로서 노인의 적

응, 대인관계, 노인복지, 신체적 특성 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3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서,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상에 답하도록 하였다. 3가지 하위 요인인 노인의 적응 및 대인관계, 노인복지, 신체 특성 각각의 신뢰도계수는 .753, .797, .826 이다.

종교성

종교의 중요성(당신의 삶에 있어서 종교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의 중요성(신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기도의 중요성(기도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에 대한 5점 척도상의 평가로 측정하였다. Fry(2003)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 계수는 여성이 .79, 남성이 .71이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 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기타, 종교없음), 건강상태(“본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나쁘다’에서 ‘매우 좋다’까지의 5 수준 상에서 답하게 하였다), 경제적 수준(“현재 당신의 경제적인 생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나쁘다’에서 ‘매우 좋다’까지의 5 수준 상에서 답하게 하였다), 거주 환경(혼자생활, 핵가족, 대가족, 공동체생활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등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논의

연구 2에 포함된 변인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되었다. 먼저 죽음 공포와 죽음 수

용에 대하여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죽음 공포 및 수용과 성격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알

표 2-1. 인구학적 변인들에 대한 빈도 분포

	남 (N=57)		여 (N=104)		전체 (N=161)	
	n	%	n	%	n	%
거주 환경						
혼자 생활	20	35.1	15	14.3	35	21.6
핵가족	33	57.9	76	72.4	109	67.3
대가족	2	3.5	11	10.5	13	8.0
공동체 생활	2	3.5	2	1.9	4	2.5
건강						
매우 나쁘다	1	1.8	0	0	1	0.6
좋지 않다	16	28.1	21	20.0	37	22.8
보통이다	23	40.4	49	46.7	72	44.4
좋은 편이다	14	24.6	31	29.5	45	27.8
매우 좋다	3	5.3	4	3.8	7	4.3
경제 수준						
매우 나쁘다	0	0	0	0	0	0
좋지 않다	19	33.3	18	17.1	37	22.8
보통이다	22	38.6	61	58.1	83	51.2
좋은 편이다	16	28.1	25	23.8	41	25.3
매우 좋다	0	0	1	1.0	1	0.6
죽음 목격 경험						
경험 없음	24	42.1	44	41.9	68	42.0
1-3회	32	56.1	57	54.3	89	54.9
4-6회	1	1.8	4	3.8	5	3.1
7회 이상	0	0	0	0	0	0
종교						
종교 없음	27	47.4	27	25.7	54	33.3
기독교	15	26.3	33	31.4	48	29.6
천주교	14	24.6	39	37.1	53	32.7
불교	1	1.8	5	4.8	6	3.7
유교	0	0	0	0	0	0
기타	0	0	1	1	1	0.6

아보기 위해 심리적 적응, 주관적 안녕감, 낙관성, 효능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신경증적 성향, 개방성 등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들과 달리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성별이나 경제 수준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보다도 성격 변인들과 죽음 관련 태도 변인들이 죽음 공포 및 수용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1은 거주 환경, 건강 상태, 경제 수준, 죽음 목격 경험, 및 종교에 대한 성별 빈도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피험자들은 핵가족의 구성원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건강상태는

보통 이상인 경우가 76.5%로 양호하였다. 경제 수준도 보통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가 77.1%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금까지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을 목격한 경험이 3회 이하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96.9%에 달하였다. 종교는 없다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천주교와 기독교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표 2-2에는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죽음 공포와 죽음 수용 변인들에 대한 응답은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기타 변인들은 5점 척도로 측정된 것이다.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

표 2-2. 죽음 관련 변인들에서의 성차

	남 성 평균 (표준편차)	여 성 평균 (표준편차)	전 체 평균 (표준편차)	<i>t</i> 값(유의도)
죽음 공포	3.59 (.85)	3.85 (.95)	3.76 (.92)	
죽음에 대한 공포	3.43 (1.11)	3.53 (1.30)	3.50 (1.23)	
죽는 과정에 대한 공포	4.67 (1.35)	5.29 (1.29)	5.07 (1.34)	-2.86(.005)**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	3.19 (1.07)	3.39 (1.07)	3.32 (1.07)	
죽음 회피	2.92 (1.05)	3.00 (1.10)	2.98 (1.08)	
죽음 수용	3.69 (.77)	4.15 (.74)	3.99 (.78)	-3.68(.000)***
중립적 수용	5.37 (.82)	5.42 (.87)	5.41 (.85)	
접근적 수용	3.34 (1.22)	3.95 (1.19)	3.74 (1.23)	-3.07(.002)**
도피적 수용	2.69 (1.26)	3.26 (1.28)	3.06 (1.30)	-2.71(.008)**
죽음에 대한 대처	2.88 (.39)	2.82 (.37)	2.84 (.37)	
노화에 대한 태도	3.26 (.57)	3.32 (.49)	3.30 (.52)	-2.24(.026)*
노인에 대한 태도	3.27 (.22)	3.36 (.25)	3.32 (.25)	-3.13(.002)**
종교성	2.63 (1.35)	3.28 (1.22)	3.05 (1.30)	-2.14(.034)*
미래 조망	3.47 (.59)	3.66 (.49)	3.59 (.53)	

주. Independent sample *t*검증(자유도=161)을 실시하였다.

p* < .05, *p* < .01, ****p* < .001

가 나타났다. 예상대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종교성이 높았다($p < .01$).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종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신의 중요성도 더 높게 평가하였다. 자신의 삶에서 기도가 중요한 정도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 공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점수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죽는 과정에 대한 공포에서는 남성($M=4.67$)보다 여성($M=5.29$)의 공포가 더 컸다($t=-2.86, p < .01$). 이 결과는 연구 1에서 시사되었던 바를 확인하여 준다. 표 2-2에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성별에 따른 t 검정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한편, 죽음 수용에 대한 성별 집단간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죽음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M=3.95$)은 남학생들($M=3.34$)보다 죽음에 대한 접근적 수용 정도가 높았고($t=-3.07, p < .01$), 도피적 수용에 있어서도 남학생들($M=2.69$)보다 여학생들($M=3.26$)의 수용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71, p < .01$). 이러한 결과들은 연구 1에서 시사되었던 바와 일치하게, 여학생들의 죽음 수용 경향성이 남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보여주었다($p < .001$). 하지만 연구 1의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남학생들의 죽음 회피 경향성은 여학생들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죽음 수용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t=-3.68, p < .001$)은 종교성에서 남성들보다($M=2.63$) 여성들($M=3.28$)이 높은 것($t=-3.13, p < .01$)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여학생들의 경우에 죽는 과정에 대한 공포는 남학생들보다 컸지만 죽음에 대한 수용이 높았다는 결과는 여성들의 경우에 죽음이라는 대상 자체는 종교적인 신념에 힘입어 수용 가능하지만 죽는 과정에 대한 공포는 클 수도 있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며,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연구 2에서는 대학생들의 죽음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이 연구에 포함되었는데, 그러한 변인들에 대한 성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인들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학생들($M=3.36$)이 남학생들($M=3.27$)에 비해서 노인들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p < .05$). 다음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인구학적 변인들이 죽음 공포 및 죽음 수용과 갖는 관계성에 대한 분석 결과 거주환경에 대한 분석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표 2-3에는 거주 환경에 따른 집단 간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죽음 공포와 죽음 수용 변인들에 대한 연령, 건강, 경제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상관 분석 결과 유의미한 관계성이 발견되지

표 2-3. 거주 환경에 따른 주요 연구 변인에서의 평균

	혼자 생활 평균(표준편차)	핵가족 평균(표준편차)	대가족 평균(표준편차)	공동체생활 평균(표준편차)
죽음 수용	3.69 (.78)	4.03 (.78)	4.32 (.73)	4.35 (.31)
죽음 공포	3.50 (.92)	3.84 (.94)	3.75 (.70)	3.67 (.65)

않았던 것에 비해서 거주환경과 죽음 수용 간의 상관성이 유의미하였다($r=.223, p<.01$). 또한 죽음 과정에 대한 공포와 거주환경간의 관계성이 유의미하였고($r=.175, p<.05$), 접근적 수용과 거주환경간의 상관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r=.263, p<.01$).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해본 결과, 혼자 생활하는 학생들보다 핵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대학생들은 죽음에 대한 수용이 더 높았고($p<.05$), 혼자 생활하는 경우보다 대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 경우에 죽음 수용이 더욱 높았다($p<.05$).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는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보다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p=.06$).

다음으로, 죽음관련 변인들과 다양한 성격 변인들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한 공포가 낮다($p<.05$)는 결과는 흥미로운 것이다. 죽음 수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중립적 수용이 높

고($p<.05$), 죽음에 대한 도피적 수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특히 죽음 수용의 하위 척도 중에서 죽음에 대한 도피적 수용은 신경증적 성향을 포함하는 여러 성격 변인들과 높은 부적 관계성을 보여주었다. 즉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죽음을 수용하려는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고($p<.01$), 비판적이며($p<.01$), 내성적이고($p<.05$), 우호성이 낮고($p<.01$), 성실성에서 낮은($p<.01$) 반면에, 신경증적 성향이 높은($p<.01$) 사람들일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접근적 수용의 정도가 높았고($p<.05$), 우호성에서 높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접근적 수용 경향성이 높았다($p<.05$).

표 2-4는 성격 변인들과 죽음관련 변인들과의 상관을 제시한 것이다. 다음으로, 죽음 공포와 죽음 수용에 대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여 연구 2에 포함되었던 변인들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5는 죽음 관련 태도 변인들에 대한 상관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2-4. 죽음 공포와 죽음 수용에 대한 성격 변인들의 상관 분석

	죽음 공포	죽는 것 공포	죽음과정 공포	미지 공포	죽음 회피	죽음 수용	도피적 수용	중립적 수용	접근적 수용
자존감	.078	-.170*	-.084	-.113	-.108	.073	-.208**	.162*	.130
낙관성	.046	.027	.050	-.008	.071	.040	-.246**	.012	.075
외향성	.053	-.042	-.033	.074	-.018	.072	-.170*	.073	.156*
우호성	.035	.057	.046	.007	-.027	.057	-.211**	.070	.160*
성실성	.004	.087	-.041	-.046	-.016	.016	-.223**	.010	.094
신경증	.088	.121	.092	.113	-.099	.018	.285**	.017	-.133
개방성	.021	-.005	.002	-.011	-.068	.062	-.046	.134	-.100

주. Pearson-r 양방향검증을 실시하였다.

* $p < .05$, ** $p < .01$, *** $p < .001$

표 2-5 죽음 공포와 죽음 수용에 대한 안녕감 척도들의 상관 분석결과

	죽음 공포	죽는 것 공포	죽음과정 공포	미지 공포	죽음 회피	죽음 수용	도피적 수용	중립적 수용	접근적 수용
죽음대처 효능감	-.222**	-.172*	-.204**	-.076	-.214**	.078	-.030	.156*	.061
노화에 대한 태도	.120	.034	-.246**	.013	.037	.187*	.090	.072	.166*
노인에 대한 태도	.223**	-.171*	-.250**	-.140	-.093	-.009	-.150	.043	.053
종교성	-.032	-.092	.031	-.067	.042	.546**	-.048	-.003	.722**

주. Pearson *r* 양방향검증을 실시하였다

p* < .05, *p* < .01, ****p* < .001

먼저 죽음 공포의 전체 점수에 대한 분석에서, 죽음에 대처하는 것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또한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낮는데(*p*<.01) 비해서, 죽는 과정에 대한 공포가 큰 사람들은 노인에 대하여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러한 결과는 Robbins(1993)의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이다.

한편, 자신의 노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죽는 과정에 대한 공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한편, 죽음 수용에 대한 분석에서는 노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피험자들이 죽음 수용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05), 종교적인 사람들의 죽음 수용 경향성이 높았

다(*p*<.01).

죽음 수용의 하위척도들을 살펴본 결과,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p*<.05)와 높은 종교성(*p*<.01)을 보이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접근적 수용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 1에서 시사된 죽음 공포와 안녕감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죽음 공포 및 죽음 수용에 대한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적응, 및 삶에 대한 만족도간의 관계성을 정리한 결과는 표 2-6에 제시되어 있다.

죽음 공포의 하위 척도인 죽음 회피는 심리적 적응(*r*=-.172, *p*<.05) 및 전반적인 삶 만족도(*r*=-.161, *p*<.05)와 부적적인 관계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도피적 수용과 주관적 안녕감은 부적으로 상관되고(*r*=.219, *p*<.01), 접

표 2-6. 죽음 공포와 죽음 수용에 대한 안녕감 척도들의 상관 분석결과

	죽음 공포	죽는 것 공포	죽음과정 공포	미지 공포	죽음 회피	죽음 수용	도피적 수용	중립적 수용	접근적 수용
심리적 적응	.148	.112	.096	.087	-.172*	.094	.078	.091	.129
전체 삶 만족	.076	.091	.010	.024	-.161*	.053	-.228**	.001	.188*
주관적안녕감	.040	.004	.095	.116	.104	.041	-.219**	.022	.159*

주. Pearson *r* 양방향검증을 실시하였다

p* < .05, *p* < .01, ****p* < .001

근적 수용과 주관적 안녕감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r=.159, p<.05$). 반면에 죽음에 대한 접근적 수용은 전반적 삶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r=.188, p<.05$), 주관적 안녕감과도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r=.159, p<.05$).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보다는 성격 변인들이 대학생들의 죽음 공포와 죽음 수용을 잘 설명해 줄 것이라는 가설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Fry(2003)는 죽음 공포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령, 교육정도, 경제적 수준, 주거환경 등의 인구학적 변인들을

첫 단계로 하고, 사회적 지지 연결망, 신체적 건강 수준, 종교성 등의 전통적 측정 도구들을 두 번째 단계로,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들을 마지막 단계로 설정하여 죽음 과정에 대한 공포와 사후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 각각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방법론에 따라서 다양한 변인들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2에 포함된 변인들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주거환경, 경제수준), 성격 변인(외향성, 신경증, 개방성, 심리적 적응,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표 2-7. 죽음 공포에 대한 회귀 분석

입력변인	β	t	F	R^2
Step 1. 인구학적 변인			$F(3, 160)$ 1.164	.022
성별	.121	1.499		
주거환경	.063	.788		
경제 수준	.005	.068		
Step 2. 성격 변인			$F(6, 160)$ 3.349**	.115
외향성	-.001	-.015		
신경증	.200	2.178*		
개방성	-.003	-.032		
심리적 적응	.369	3.853***		
사회적 지지	-.086	-1.011		
자아존중감	-.224	-2.432*		
Step 3. 죽음관련 태도변인			$F(4, 159)$ 5.477***	.124
종교성	-.047	-.615		
죽음대처 효능감	-.237	-2.986**		
노화에 대한 태도	-.199	-2.568*		
노인에 대한 태도	.209	2.667**		

* $p < .05$, ** $p < .01$, *** $p < .001$

및 죽음 관련 태도 변인(종교성, 노인에 대한 태도, 노화에 대한 태도, 죽음 대처 효능감)의 세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죽음 공포에 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7에 제시되어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죽음 공포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던 반면에, 본 연구에 포함된 성격 변인들은 청년 집단의 죽음 공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R^2=.115, p<.01$). 또한 죽음 관련 태도 변인들(종교성, 죽음 대처 효능감, 노화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도 죽음 공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R^2=.124, p<.001$).

다음으로, 죽음 수용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p<.01$)과 거주 환경($p<.05$)을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대학생들의 죽음 수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R^2=.110, p<.001$). 또한, 종교성($p<.001$)을 포함한 죽음 관련 태도 변인들이 대학생들의 죽음 수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2=.330, p<.001$). 이러한 변인들은 죽음 수용의 전체 변산 중에서 약 44%

표 2-8. 죽음 수용에 대한 회귀 분석

입력 변인	β	t	F	R^2
Step 1. 인구학적 변인			$F(3,160)$ 6.469***	.110
성	.243	3.162**		
주거 환경	.174	2.268*		
경제 수준	.039	.517		
Step 2. 성격 변인			$F(6,160)$ 1.027	.038
외향성	.057	.608		
신경증	.139	1.450		
개방성	-.126	-1.445		
심리적 적응	.119	1.186		
사회적 지지	.101	1.138		
자아존중감	.030	.317		
Step 3. 죽음관련 태도변인			$F(4,159)$ 19.098***	.330
종교성	.547	8.231***		
죽음대처 효능	.091	1.317		
노화에 대한 태도	-.091	-1.335		
노인에 대한 태도	.126	1.842		

* $p < .05$, ** $p < .01$, *** $p < .001$

를 설명하여 주었다. 죽음 수용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는 표 2-8에 제시되어 있다.

종합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죽음 수용과 죽음 공포를 포괄하는 죽음 태도에 미치는 성차의 영향과 더불어 다양한 성격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연구 1에서는 성별에 따른 죽음 수용과 죽음 공포에서의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청년집단에서 여성의 죽음 수용 경향성이 높은 반면에 남성의 죽음 회피 경향성은 비교적 높다는 흥미로운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또한 안녕감과 죽음 공포간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2는 연구 1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는 것이었는데, 연구 결과를 통해 청년 집단의 경우에 죽음 공포와 죽음 수용은 상이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는 비교적 독립적인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적 성향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성격 변인과 심리적 적응,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태도 변인들이 청년들의 죽음 공포를 예측하여 주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난데 비해서, 죽음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성별이나 주거 환경, 그리고 종교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죽음 수용에 미치는 종교성의 영향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종교성이 종교에 대한 개인적 신념을 측정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교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도가 자신의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일수록 죽음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나타냈다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성에서의 차이가 성차와 유의미하게 관련되었고, 본 연구에 포함된 피험자 중 여성의 수가 더 많았으므로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기하여야 할 것이며,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 있듯이 노인들이 보호 시설에서 생활하는지, 혼자 생활하는지, 또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지의 여부는 죽음 공포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 특기할만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죽음 수용의 측면에서 주거 환경의 영향이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즉, 조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대학생들의 경우에 죽음에 대한 수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흥미로운 시사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심각한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연구에 사용된 표집의 크기가 작고, 여성의 수가 남성들 보다 많기 때문에 특히 성차와 관련된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제한된다. 비록 성차와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가 기존 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는 탐색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차후 광범위한 후속 연구를 통해 연구 가설들을 다시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한계점으로는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의 산만함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이 죽음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지나치게 많은 변인들을 포함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 죽음 태도와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인 변인들을 중심으로

연구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로 연구의 실용적 측면에서의 유용성이 부족한 점을 제한점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년 집단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된 행동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았다. Robbins(1990)는 죽음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의 자기 효능감을 ‘죽음 유능감(Death Competency)’으로 개념화하면서, 이러한 유능감이 장기 기증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 즉,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기로 서약한 사람들은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죽음 대처 효능감이 죽음 공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청년 집단의 장기 기증 서약과 같은 행동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죽음 수용의 정도를 탐색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었기 때문에 죽음 공포를 다루는 연구로서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죽음 공포를 다룬 기존 연구들에서 연령은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여러 연구자들은 연령이 죽음 공포와 부적으로 상관됨을 보였으며(Johnson, 1980; Neimeyer, 1985), 대규모 표집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비선형적 관계성(curvilinear trend)도 얻어졌다.

Gesser 등(1988)은 청년 집단(18-26세), 중년 집단(35-50세), 노년 집단(60세 이상)의 세 집단을 사용하여 죽음 태도 척도(Death Attitude Profile)를 실시한 결과, 중년 집단이 가장 높은 죽음 공포를 보이고 청년 집단은 그 다음으로 높은 죽음 공포를 나타냈으며, 노인 집단의 죽음 공포가 가장 낮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

다.

따라서 중년 집단과 노년 집단을 포함하는 후속 연구를 실시하여 연령 집단에 따라서 죽음 공포와 죽음 수용에 미치는 다양한 심리학적 변인들의 영향에 대한 비교를 통해야만 그 의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본 연구에서 얻어진 시사점들에 기반하여 죽음에 대한 공포와 수용을 심도 있게 탐색한다면 성공적인 노화에 공헌하는 심리학적 요인으로서의 죽음 수용 태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죽음 수용 수준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가 중년 및 노년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될 후속 연구에서도 확인될 수 있을 것인지를 탐색하는 것은 노년기의 심리적 적응과 안녕감에서의 성차를 설명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민희 (2003). 노년기 정서경험과 정서조절의 특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아영, 차정은 (1996). 자기효능감의 측정.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1-64.
- 민경환 (2002). 성격심리학. 법문사.
- 이선자 (1989). 연령단계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훈구 외 (2003). 정서심리학. 법문사.
- Aday, R. H. (1984). Belief in afterlife and death anxiety: Correlates and comparisons. *Omega*, 15, 67-75.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Bandura, A. (2000). Exercise of human functioning through collective efficac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3), 75-78.
- Berman, A., & Hays, J. E. (1975). Relation between death anxiety, belief in afterlife, and locus of contro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318-321.
- Butler, R. N. (1961). The life review: An interpretation of reminiscence in the aged. In B. L. Neugarten (Ed.), *Middle age and aging* (pp. 486-49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utler, R. N. (1963). The life review: An interpretation of reminiscence in old age. *Psychiatry*, 26, 65-76.
- Collett, L. J., & Lester, D. (1969). The fear of death and the fear of dying. *Journal of Psychology*, 72, 179-181.
- Dattel, A. R. & Neimeyer, R. A. (1990). Sex differences in death anxiety: Testing the emotional expressiveness hypothesis. *Death Studies*, 14, 1-11.
- DePaola, S. J., Neimeyer, R. A., Lupfer, M. B., & Fiedler, J. (1994). Death concern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in nursing home personnel. In R. A. Neimeyer (Ed.), *Death anxiety handbook*, (pp. 201-216). Washington DC: Francis & Taylor.
- Drolet, J. L. (1990). Transcending death during early adulthood: Symbolic immortality, death anxiety, and purpose of lif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6, 148-160.
- Durlak, J. A., (1972). Measurements of the fear of deat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 545-547.
- Epting, F. R., & Neimeyer, R. A. (1984). *Personal meanings of death*. Washington, DC: Hemisphere.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rev. ed.). New York: Norton.
- Erikson, E. H.(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Norton.
- Feifel, H., & Branscomb, A. B. (1973). Who's afraid of death?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1, 282-288.
- Feifel, H., & Nagy, V. T. (1981). Another look at fear of dea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278-286.
- Feifel, H. (1990). Psychology and death. *American Psychologist*, 45, 537-543.
- Flint, G. A., Grayton, W. F., & Ozmon, K. L. (1983). Relationships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acceptance of death by elderly persons. *Psychological Reports*, 53, 290.
- Florian, V., & Kravetz, S. (1983). Fear of personal death: Attribution, structure, and relation to religions belie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600-607.
- Fortner, B. V., & Neimeyer, R. A. (1999). Death anxiety in older adults: A quantitative review. *Death Studies*, 23, 387-412.
- Frankl, V. E. (1963). *Man's search for meaning*. Boston: Beacon Press.
- Fry, P. S. (2003). Perceived Self-efficacy domains as predictors of fear of the unknown and fear of dying among older adults. *Psychology and*

- Aging*, 18, 474-486.
- Georgemiller, R., & Maloney, H. N. (1984). Group life review and denial of death. *Clinical Gerontologist*, 2(4), 37-49.
- Hoelter, J. W. (1979a). Multidimensional treatment of fear of dea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996-999.
- Jeffers, F. C., Nichols, C. R., & Eisdorfer, C. (1961). Attitudes of older persons toward death. A preliminary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16, 53-56.
- Klenow, D. J., & Bolin, R. C. (1989). Belief in an afterlife : A national survey. *Omega*, 20, 63-74.
- Kübler-Ross, E. (1969). On death and dying. New York : Macmillan.
- Klug, L., & Boss, M. (1976). Factorial structure of the death concern scale. *Psychological Reports*, 38, 107-112.
- Klug, L., & Sinha, A. (1987). Death acceptance: A two-component formulation and scale. *Omega*, 18, 229-235.
- Krause, N. (1993). Measuring religiosity in later life. *Research on Aging*, 2, 170-197.
- Markides, K. S. (1983). Aging, religiosity, and adjustment: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Gerontology*, 38, 621-625.
- Neimeyer, R. A. (1985). Actualization, integration and fear of death: A test of the additive model. *Death Studies*, 9, 235-250.
- Neimeyer, R. A. (1986). The threat hypothesis: a conceptual and empirical defense. *Death Studies*, 10, 177-190.
- Neimeyer, R. A., & Moore, M. K. (1989). Assessing personal meanings of death: Empirical refinements in the Threat Index. *Death Studies*, 13, 227-245.
- Neimeyer, R. A. (1994).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Peterson, S. A. & Greil, A. L. (1990). Death experience and religion. *Omega*, 21, 75-82.
- Pollark, J. M. (1980). Correlates of death anxiety: A review of empirical studies, *Omega*, 10, 97-121.
- Ray, J. J., & Najman, J. (1974). Death anxiety and death acceptance: A preliminary approach. *Omega*, 5, 311-315.
- Robbins, R. A. (1990). Signing an organ donor card: Psychological factors. *Death Studies*, 14, 219-229.
- Robbins, R. A. (1994). Death competency: Bugen's coping with death scale and death self-efficacy. In R. A. Neimeyer(Ed.) *Death anxiety handbook*, (pp. 149-179). Washington, DC : Taylor & Francis.
- Steinitz, L. Y. (1980). Religiosity, well-being, and weltanschauung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9, 60-87.
- Tomer, A. (1994). Death anxiety in adult life: Theoretical perspectives. In R. A. Neimeyer (Ed.) *Death anxiety handbook*, (pp. 3-28).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Vernon, G. (1972). Death control. *Omega*, 3, 131-138.
- Vickio, C. J., & Cavanaugh, J. C. (1985). Relationships among death anxiety, attitudes toward aging, and experience with death in nursing home employees. *Journal of Gerontology*, 40, 347-349.

- Wass, H. Bernardo, F., & Neimeyer, R. A. (Eds.). (1988). *Dying: Facing the facts*(2nd ed.). Washington, DC: Hemisphere.
- Wong, P. T. P. (1989). Successful aging and personal meaning. *Canadian Psychology*, 30, 516-525.
- Wong, P. T. P., & Watt, L. (1991). What types of reminiscence are associated with successful aging? *Psychology and Aging*, 6, 272-279.
- Wong, P. T. P., Recker, G. T., & Gesser, G. (1994).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attitudes toward death. In R. A. Neimeyer(Ed.) *Death anxiety handbook*, (pp. 121-148).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1 차원고접수 : 2005. 10. 10

수정원고접수 : 2005. 11. 01

최종게재결정 : 2005. 12. 10

K C I

The Influence of Gender and Personality on Fear of Death and Death Acceptance among Young Adults

Ji-Hyun Kim

Kyung-Hwan Min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gender and personality variables on fear of death and death acceptance among young adults. In Study 1, using a sample of 82 male and 101 female college students, the sex differences in death fear and death acceptance were examined. As the result, women tended to report significantly more death acceptance than men while men showed more fear of death than women. In Study 2, using a sample of 57 male and 104 female college students, the influence of demographics, personality variables, and subjective well-being indices on fear of death and death acceptance were investigated. Findings from a serie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that were conducted separately for fear of death and death acceptance show that personality variables including self-esteem,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neuroticism are significantly stronger predictors of death fears than are demographics while gender, living arrangements, and religiosity being the most potent predictors of death acceptance among young adults. Th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fear of death, death acceptance, gender, personality variables, demographics, religiosity